2026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교과전형 ⑧

성적 반영 방식 꼼꼼히 살펴 내게 맞는 교과전형 찾았어요

학생부교과전형은 대학마다 반영 과목과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 지원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남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진용씨는 중위권인 내신 성적과 학생부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교과전형을 선택했다. 특히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데 집중했다. 진용씨에게 교과전형 지원 과정과 합격 비결을 들어봤다.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심진용
한남대 자유전공학부
(대전한빛고)

Q | 교과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교과전형만을 목표로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종합전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했죠. 한데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지더라고요. 당시 내신 성적은 중위권이었고, 제 상황에서는 학생부보다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해 교과전형을 선택했습니다.

Q | 과목별 학습법을 알려준다면?

우선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제 강점과 약점을 고려했습니다. 수학은 도형에 자신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선택하는 〈미적분〉 대신 〈기하〉를 선택했고, 실제로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과학은 처음에는 〈물리학〉과 〈지구과학〉을 공부했지만, 〈물리학〉은 역학 부분이 어려워 〈생명과학〉으로 바꿨습니다.

학교 시험은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고3 때는 EBS 〈수능특강〉을 교재로 활용했고요. 특히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 풀이 방법을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가 다르게 출제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학과 과학의 경우 공식을 무작정 외우기보다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하면 문제에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반면 풀이법만 외우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응용하기가 어렵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특히 많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게 막막했어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끝내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배들에게 영어처럼 꾸준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과목은 흥미와 관계없이 매일 조금씩 공부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Q |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했는데, 수능 대비는 어떻게 했나?

별개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며 준비했어요. 모교의 내신 문제가 수능형이라 내신 공부가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능 탐구 과목은 처음에는 〈지구과학 I〉 〈생명과학 I〉을 선택했다가 〈한국지리〉 〈사회·문화〉로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익숙한 과목을 고집하기보다 지원 대학의 탐구 반영 방식과 제 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죠.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영어〉였어요. 모든 영역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기 쉬운 듣기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듣기 문제만큼은 최대한 틀리지 않겠다는 목표로 준비했죠.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부터 공략했습니다.

Q | 한남대 교과전형을 선택한 이유는?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는 성적 반영 방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같은 내신 성적이라도 대학마다 반영 과목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산 점수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남대 교과전형의 경우 자연 계열은 수학 교과 중 상위 3과목,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 중 상위 최대 12과목을 반영했어요. 저는 과목별로 성적 편차가 심해서 내신 평균 등급이 낮았는데, 한남대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남대 자유전공학부를 비롯해 국립한국교통대 자유전공학부, 국립한밭대 공학건설학부와 정보기술학부, 국립금오공과대 자율전공학부, 강원대 강릉캠퍼스 전자반도체공학부에 지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남대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했고요.

Q |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자신의 내신 평균 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미리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마다 성적 반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내신 평균이라도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과목별 반영 비율은 어떤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과목별로 성적 편차가 큰 학생이라면 자신 있는 과목을 주로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길 추천합니다. 전체 평균은 낮더라도 특정 과목의 성적이 높다면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이 있거든요. 저 역시 중위권 내신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별 전형 방식을 비교했고, 제 성적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조건 높은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익숙한 대학만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부와 교과 성적의 장단점을 살피고, 여러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도 입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TIP

중위권 학생에게 추천하는 EBS 활용법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학교 수업과 EBS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추천한다. EBSi 〈수능개념〉 〈수능특강〉 〈수능완성〉 순서로 학습하고 강의마다 OT 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 수강하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배운 내용을 직접 문제에 적용하며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